

해외 휴대폰메이커 감축

세계휴대폰 판매량을 살펴보면, 노키아가 2008년 4억68백만대에서 2009년 4억63백만대로 감소, 삼성전자가 2008년 1억96백만대에서 2009년 2억1천만대로 증가, LG전자가 2008년 1억대에서 2009년 9천7백만대로 감소, 소니에릭슨이 2008년 96백만대에서 2009년 92백만대로 감소, 모토로라가 2008년 1억대에서 2009년 87백만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스트레티지에널리틱스가 전망했다.

노키아, 작년 4억6천만대 판매로 세계 1위 휴대폰 메이커

해외 주요 휴대폰메이커들의 구조조정을 요약하면, 노키아가 핀란드살로공장의 생산을 감축하고, 인력을 일시해고하며, 핀란드내 연구개발세터를 일부 폐쇄하며, 마케팅인력도 감축한다는 것이다. 모토로라는 이미 지난해 3천명을 감원하였고, 금년에도 4천명을 추가 감원하며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4분의 1 삭감한다는 것이다. 소니에릭슨은 금년 중 2천명의 감원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경기 위축으로 7년 만에 마이너스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 구조조정이 심화되고 있다.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등 업체에 이어 1위 업체인 노키아까지 손을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업체는 프리미엄 제품과 아울러 저가형 시장에서도 공격 경영에 나

설 예정이어서 시장 재편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에 따르면, 2월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미엄 제품을 주로 생산하던 핀란드 살로 공장의 생산량을 줄이고 인력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노키아 측은 “비용절감 계획(2010년까지 7억유로)에 따라 살로 공장 가동을 줄이기로 했다”며 “공장 인력 2500명 중 20~30%를 최장 90일 동안 일시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며 최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키아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신호이다. 세계 휴대폰 시장 축소 추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업체는 삼성과 LG 등 국내 휴대폰 업체가 올해 플터치, 스마트폰 등 하이엔드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더욱 확대한다는 전략이어서 반사 이익이 예상된다.

노키아의 서유럽 최대 공장에서 감축 추진

핀란드 서부에 위치한 살로 공장은 노키아의 서유럽 최대 휴대폰 제조 공장이다. 연간 생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키아는 이곳에서 스마트폰 ‘N시리즈’와 비즈니스용 모델 ‘0시리즈’ 등 전통적으로 높은 제조 기술이 필요한 하이엔드 휴대폰

세계 휴대폰 판매량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며 최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키아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신호이다. 세계 휴대폰 시장 축소 추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을 생산해왔다. 노키아는 이위바스켈라에 소재한 연구개발센터를 올 연말까지 폐쇄하고 이 센터에 소속된 직원 320명 전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키아는 핀란드 내 연구개발 업무를 탐페레, 오울루, 살로, 헬싱키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글로벌 휴대폰 4, 5위 업체인 모토로라와 소니에릭슨도 생존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모토로라는 휴대폰 사업부문 규모 축소와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회복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미 작년에 3천여명의 감원을 단행했으며, 올해 4천여명을 추가로 감원할 예정이다. 작년 4분기 242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한 소니에릭슨도 영업이익률이 -9.0%로 적자 폭이 커졌다. 이 업체는 올해 전 세계 직원의 4% 수준인 2천여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모토로라, 소니에릭슨도 구조조정 중

노키아의 핀란드 공장 생산 감축으로 우리나라 휴대폰 업체는 전체 휴대폰 시장은 몰라도 스마트폰 시장에서만큼은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1위 노키아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프리미엄 휴대폰 생산량을 크게 줄이는 반사 이익을 우리 업체들이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LG전자는 이에 앞서 올해 스마트폰 라인업을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40여종을 내놓는 등 공격 경영을 선언했다.

노키아가 생산량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핀란드 살로 공장은 프리미엄 제품을 주로 생산한다. 노키아의 간판 스마트폰인 'N시리즈'와 비즈니스용 모델 'E시리즈'와 같은 하이엔드 휴대폰이 이 공장에서 나온다. 살로 공장의 이번 감산 결정은 소비 위축에 따른 하이엔드 휴대폰 판매가 저하될 것이라는 노키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노키아는 감축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노키아 수급 네트워크 담당 총괄은 시장 수요 감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며 가동을 멈추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노키아는 핀란드 내 R&D 업무를 탐페레, 오울루, 살로, 헬싱키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수요가 불확실한 하이엔드 제품과 미래 제품보다 확실한 중저가 제품에 집중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국내업체, 스마트폰에 주력

우리 업체들은 올해를 스마트폰 원년으로 선언했다.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비중도 시장 성장세에 맞춰 늘려 시장 공략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난해 20여종의 스마트폰을 출시한 삼성전

자는 사업 기반을 어느 정도 갖췄다는 판단 아래 내년 30종 이상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2~3년 내에 글로벌 시장 성장세에 맞춰 스마트폰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운영체제(OS)도 윈도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되 심비안·안드로이드·리모 등 다양한 OS를 섭렵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비중은 10% 미만에 머물렀지만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2011년께 30%에 육박할 전망이다.

LG전자도 올해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올 분기별로 3개 모델, 총 12종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2012년까지 스마트폰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풀터치와 디자인 등 일반 휴대폰에서 갖춘 강점을 스마트폰에도 접목해 소비자에게 친숙한 모델을 북미와 유럽·아시아 등 전 세계에 동시 출시하기로 했다.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비즈니스 용도에서 탈피해 일반 사용자 중심으로 기반이 넓어지며 급격한 성장세에 있다. 전자신문에 의하면, 올해 2억1000만대 수준에서 2012년 4억6000만대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 TV시장이 지난 분기에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한국 휴대폰 점유율 30% 기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사상 첫 점유율 '30%'에 도전한다. 경기 불황으로 전체 휴대폰 시장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공격 경영을 펼쳐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2월 스페인 'MWC 2009'에서 올해 점유율을 20%를 넘기겠다는 경영 목표를 공개했으며, LG전자도 10%대를 넘는 공격적인 목표를 확정,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동시에 2억대 이상을 판매해 시장 점유율 20%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무선사업부 부사장은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대하고 신흥시장에서 사업 기반을 강화해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인 ABI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16.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노키아에 이어 2위 자리를 확실히 굳혔다. 신 부사장은 이어 “삼성은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22% 늘어나며 글로벌 업체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면서 “올해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LG전자도 1억대 이상을 판매해 점유율 10%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MC사업본부 사장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혁신과 스마트폰 리더십 확보, 신흥 시장 마케팅 강화 등 3대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해 올해 1억대 이상을 판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LG전자가 두 자릿수 이상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잡은 것은 처음이다. 이 회사의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은 8.3%다. 한 생산라인에서 최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플랫폼 전략을 전개하고 이와 함께 공급망 관리를 통한 유통구조도 혁신해 비용 절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